

◇폐절제술후 발생한 합병증 및 사망률에 대한 후향적 고찰

문광덕, 이철주, 김영진, 소동문, 류한영, 노환규, 최호, 김정태, 강준규,  
홍준화

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

**배경 및 목적 :** 아주대학교 의료원 흉부외과에서 1996년 6월 1일부터 1998년 8월 23일까지 폐 절제술을 시행받은 폐암 및 폐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 고찰을 하여 폐절제술후 발생한 합병증 및 사망율을 알아보고자 하였다.

**방법 :** 1996년 6월 1일부터 1998년 8월 23일까지 폐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는 203명 이었고 수술전의 대상환자의 성별, 연령, 호흡기 증상과 원인 질환과 폐절제술의 범위에따른 합병증 및 사망률을 분석하였고 사망은 술후 30일 이내의 사망, 폐렴이나 호흡부전등과 같은 폐합병증, 24시간이상 인공 호흡기의 사용 유무, 심장계 합병증, 농흉을 비롯한 기타 합병증으로 분류하여 수술후 합병증의 발생 여부를 확인 하였다.

**결과 :** 대상 환자 203명의 평균 연령은 47.5 ± 9.5세 이었고 남자 142명, 여자 61명이었다. 수술전에 우연히 흉부 단순촬영에서 병변을 알게된 경우가 23례 있었다. 원인 질환은 폐 종양이 102례이었고 기관지 확장증, 폐 국균증, 폐 결핵등 기타 질환이 101례이었다. 폐절제술의 범위로는 일폐엽 절제술 117례[57.6 %], 이폐엽 절제술 18례[8.9 %], 일측 전폐절제술이 68례[33.5 %]이었다. 술후 사망율은 5례[2.4 %]이었고 술후 합병증으로는 폐렴, 무기폐, 호흡곤란, 7일이상의 지속적 공기 누출등 폐합병증이 19례[9.4 %]로 제일 많았다.

**결론 :** 폐절제술에 있어서 수술 사망률은 2.1%에서 12.4%까지 발표되어있고, 또한 술후합병증도 3%에서 14.8%까지 다양하게 발표되고 있다. 최근들어 수술성적이 향상되는 것은 술전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는 진단법의 개발, 술후 환자관리의 발달, 그리고 자동기관지 봉합기구와 같은 수술 기계의 발달등이 복합적으로 상승작용을 한 결과라고 생각된다.

책임저자:문광덕(아주대학교) 발표자:문광덕(아주대학교)